



과학기술과 환경윤리



신 응 배
한양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환

경오염의 심각성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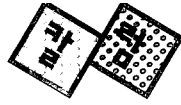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국제적으로는 국제연합에 유엔환경기구(UNEP)가 설립 후 25년간 노력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도 환경부가 설립되어 20여년 가까이 노력을 하여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 문제는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환경오염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해결방법은 무엇인가?' 수려한 환경에 대한 국민적 회구와 이를 뒷받침하는 국가의 정책적 의지가 바로 그 답이라고 생각된다.

즉 환경보전의 성공적 실천은 법제화, 제도화 및 행정력으로 강력히 뒷받침하는 공직자들의 몫일 수밖에 없다. 이와같은 국가의 정책은 그 시작 단계에서부터 장기적이고도 포괄적인 안목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정책에 우리국민 모두의 생활이 달려있음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뿐만아니라 이러한 국가의 정책에 국민모두의 희생적 참여와 헌신이 뒷받침 될때만이 현재의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그러한 희생과 헌신은 국민 개개인의 환경적 양심에 그 해답이 있다고 하겠으므로 이는 곧 국민의 의식수준이며 윤리도덕 문제인 것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습은 급진적으로 변

국가의 정책에 국민모두의 희생적 참여와 헌신이 뒷받침 될때만이 현재의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그러한 희생과 헌신은 국민 개개인의 환경적 양심에 그 해답이 있다고 하겠으므로 이는 곧 국민의 의식수준이며 윤리도덕 문제인 것이다.

하였고 사고의 체계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대변혁에 직면하게 되었다. 과학과 기술이 없이는 사회 발전을 기약할 수 없는 반면 과학기술이 갖는 환경 파괴력은 점점 증대되어왔다. 우리는 과학과 기술이 우리에게 안겨 주는 이로인 점과 해로운 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적절히 대처해 나아가야 하겠다. 과학기술로 얻게되는 이익의 극대화 와 해의 극소화를 통한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만 문명의 이기로서 과학기술의 사명을 다 한다 하겠다.

현대산업사회의 환경문제의 원인을 여러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각각 그 요인들을 설명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사람의 양심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이 갖게 되는 윤리관이 문제의 핵심이 되는 것이다. 즉, 사람이 생각하고 그 생각을 행위로 옮기고 그로부터 야기되는 결과등 일련의 행위에 대한 선과 악의 표준, 자기 행위에 대한 스스로의 비판으로 부터 자신을 검증하고 이를 통하여 자신의 도덕성을 강화하고 재무장 하여야 하는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이 지녀야 할 최소한의 양심인 것이다. 미국의 현직 부통령 Al Gore가 그의 저서 "균형 잡힌 지구"에서 환경문제는 정치와 기술에 못지않게 도덕적 가치의 문제라고 평가 하였으며 지구적 환경위기의 근원을 따지고 보면 환경문제



는 정신적 내면 위기의 외적 표출임을 더욱 확신하게 된다고 서술하고 있다.

1987년에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가 진취적 사고를 하는 22인을 선정하고 그들에게 "21세기에 인류가 당면할 과제가 무엇이나?"라는 같은 질문을 던지고 그들과 면담한 후 이 면담 내용을 기초로 "21세기의 과제"라는 책자를 발간하였다. 중요한 것은 면담자들이 "21세기의 인류의 삶의 모양새는 발전된 기술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다 오히려 새로운 발명이 끼칠 사회적 충격을 소화시키는 인간의 능력에 의하여 결정지워진다"고 믿고 있다는 점이다.

환경문제는 과학기술 이전의 문제라는 생각을 더 굳히게 된다. 정책의 입안, 제도 및 행정의 지원체제 정비, 구체적 오염방지 전략수립, 수립전략의 차질 없는 수행, 수행 여부의 감시감독, 오염절감(환경개선) 효율성 및 효과의 달성여부평가 분석, 미진한 부분 도출 및 개선 대책수립 등의 업무수행이 환경개선의 방법이며 어느 한 단계도 소홀히 하여서는 전체가 성공 할 수 없다. 단계별로 과학기술이 필요하며 과학기술의 수단을 동원하지 아니하고는 어느 한 단계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계획이 될 수가 없지만 결국은 사람이 하여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떠한 요인보다 우선되는 요인은 사람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에게는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준법정신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고, 공공의 상호이익과 상부상조의 이상을 추구하기 보다는 아전인수적 사고나 행동에 젖어 남에게 끼치는 피해쯤은 아랑곳하지 않는 극도의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정직하기 보다는 타인을 기만해서 이익을 추구하려는 사람,민주적이기 보다는 권위주의적이며, 개방적이고 진취적이기 보다는 폐쇄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사람도 있다. 합리적 과학적인 사고 보다는 비합리적이고 주먹구구식인 사고방식으로 다 결여된 윤리관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결국 이런 사고방식들이 오

염행위 정도는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자행할 수 있는 일쯤으로 여긴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비행기, 기차, 선박, 지하철 사고, 아파트와 다리 붕괴사고로 인해 많은 인명을 잃었다. 사건 발생 원인과 발생 당시 비상상태 대처의 신속성 결여 등으로 미루어 최근에 발생한 인재적 사고들을 볼 때 미개한 나라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국민 개인소득 10,000불이 넘는 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구나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며 세계가 경악하고 있다. 한강의 기적을 자랑하여 온 터에 나라의 체면은 물론 국민적 자존심마저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에 할 말마저 잃고 있다.

겉모양만으로는 건전한 사회같이 보이는 우리가 그 속의 구조와 내용들이 이렇게 부실하여서야 어찌 선진국을 바라 볼 것이며 개도국의 선두주자로서의 모범인들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참담하기만 하다. 개인 욕망에 대한 무절제, 무책임, 요령주의, 적당주의적 직업의식, 최소한의 규범조차 무시하고 자기행위만을 정당화 하려드는 비도덕적이고 배타적 이기심만이 팽배해 있는 듯 하여 안타깝다. 필시 그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법하다.

현 환경보존에 대한, 우리사회의 환경과 인간과의 관계가 적절치 못함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여기에 동의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 것이다.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지난날의 우리의 선택의지가 과연 어떤 강력한 내력에 의한 것이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어떤 심성이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고자 말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 우리의 오늘은 과거의 우리자신이 내렸던 선택의 결과요 오늘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내리게 되는 오늘의 결정이 후세에 미치게 될 충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오늘의 문제해결의 대안을 선택하여야 하는 도덕적 책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환경문제는 단계별로 과학기술이 필요하며 과학기술의 수단을 동원하지 아니하고는 어느 한 단계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계획이 될 수가 없지만 결국은 사람이 하여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떠한 요인보다 우선되는 요인은 사람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